불교학연구 (Journal for Buddhist Studies)
제56호 (2018.9) pp. 53~81

돈황사본 『본업영락경소(本業瓔珞經疏)』 (Stein no.2748)의 사상사적 위치*
– 인용문헌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이상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leesm.budphil@gmail.com

I. 들어가며
II. 『본업경소』의 인용경론
III. 『십지론의소』와의 관계
IV. 『인왕반야실상론』과의 관계
V. 맺으며

요약문

본고는 돈황사본 S.2748에 인용된 문헌들의 고찰을 통해 그 사상사적 위치를 추적하였다. 고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업경소』에는 북조의 여러 경록에 기재된 경전들이 함께 인용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선비보살경』, 『무진의경』과 같이 이후 지론학파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전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무진의경』의 경우 『대집경』에 수록된 형태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본고는 2018년 6월 30일/7월 1일 양일간 서울(조계사 국제학술회의장)에서 개최되었던 한중일 삼국 공동학술대회 "돈황사본과 불교학"(한국 금강대·중국 런민대·일본 도요대 공동주최)에서 발표한 졸고 「지론문헌 내 『本業瓔珞經疏』(Stein no.2748)의 위치」(6월 30일 발표)를 수정·증보한 것이다. 학회의 논평자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선생 및 본고의 심사를 담당해 주신 세 심사위원들의 적확한 지적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린다.

2) 『본업경소』에는 여러 부분에서 『십지경론』이 인용되고 있다. 그 중 42계위설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영락본업경』에 의지하고 있지만, 십지(十地) 부분만은 『십지경론』의 내용으로 주석되어 있다.

3) 『본업경소』와 『십지론의소』는 거의 동일한 형태의 구절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보았을 때 『본업경소』가 법상(法上) 주변에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구절을 기준으로 문헌 성립의 선후 관계를 배정할 수 있다면 『본업경소』가 『십지론의소』보다 선행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본업경소』와 『십지론의소』의 상응 구절에는 "초지에서 삼계를 벗어난다"는 지론학파의 설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본업경소』의 작성 이전부터 지론학파의 교설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업경소』에는 『영락본업경』의 설을 따라 "7지에서 삼계를 벗어난다"는 설도 등장하기 때문에 당시 지론학파 내에서 두 가지 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존하고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본업경소』와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는 문헌으로는 또 다른 돈황사본인 『인왕실상론』이 있다. 양 문헌은 분명한 상응 구절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간에 참조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편, 『본업경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는 지론학파의 교리들이 『인왕실상론』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두 문헌이 동일한 그룹에서 찬술되었다는 점, 그리고 동일한 그룹 안에서도 사상적인 변천과정이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론학파, 돈황사본, 『보살영락본업경』, 『본업영락경소』, 『십지경론』, 『십지론의소』, 『인왕반야실상론』

I. 들어가며

본고는 돈황사본 S.2748번 『본업영락경소(本業瓔珞經疏)』(의제, T.85, no.2798,[1)]

1) 해당 사본의 이미지는 『燉煌寶藏』 권23 pp.109-128에 영인되어 있으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내용 검토에 제약이 따른다. 한편 大正本 또한 사본과 비교하였을 때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大正本을 기준으로 텍스트를 제시하였으나 원본과의 대조, 인용경론의 문구

이하 "『본업경소』")의 사상사적 위치를 고찰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본 사본은 766행이 남아 있는 단편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모두 결락되어 사본의 제목이나 서사지역, 시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T.24, no.1485, 이하 『영락본업경』)[2]을 수문석의(隨文釋義)의 형태로 해설한 주석서이며, 상권의 「집중품(集衆品)」부터 「현성학관품(賢聖學觀品)」까지의 주석 부분이 현존한다.[3] 후대의 경록 중 해당 문헌으로 추정할 만한 기록은 없으나 근래의 연구를 통해서 해당 문헌이 지론학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저술된 문헌임이 지적되었다.[4] 선행 연구에서는 본 사본을 "오문(五門) 관련" 문헌으로 규정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의 구절이다.

> 이 아래부터는 경전의 두 번째이니, 다음으로 「진실근본분(眞實根本分)」을 설명한다. 앞서 해석한 「발기정종분(發起正宗分)」에서 [경이 설해질] 이유가 일어나고 핵심 주제 [또한] 드러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실근본분」을 설명하는 것이다. 만약 오문(五門)의 순서로 말하자면 여기부터는

등을 통해 확인된 명백한 오자(誤字)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였다. 해당 사본의 교감표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2) 『영락본업경』은 5세기 중후반의 중국 찬술 경전이다. 비록 인도 전래의 경전은 아니지만, 보살계, 42계위설 등 본 경전이 동아시아 불교 교학에 끼친 영향은 절대로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해당 경전에 관한 논의는 大野法道, 『大乘戒經の研究』, 東京: 理想社, 1963(1954), pp.159-165 ; 佐藤哲英, 『續·天台大師の研究: 天台智顗をめぐる諸問題』, 京都:百華苑, 1981, pp.72-112 ; 藤谷昌紀 「『菩薩瓔珞本業経』の諸本について:敦煌写本S.3460を中心に」, 『印度學佛教學研究』 54(1), 2005 ; 이자평, 「『菩薩瓔珞本業經』의 菩薩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등을 참조. 특히 해당 경전이 남조에서 성립했음을 논한 연구로는 船山徹, 「疑経『梵網経』成立の諸問題」, 『仏教史学研究』 39(1), 1996, pp.67-70을 참조.

3) 『영락본업경』에 대한 현존 주석서로는 본고의 주요 소재인 『本業瓔珞經疏』와 元曉의 저술로 전해지는 『瓔珞本業經疏』 두 본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는 『영락본업경』의 上卷, 후자는 下卷에 대한 주석만이 남아 있다. 두 문헌의 주석 구절이 겹치는 부분도 있었으나 두 문헌 간의 사상적 영향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4) 『본업경소』가 五門 관련 문헌으로서 지론학파의 저술이라는 점은 青木隆, 「地論宗の融卽論と縁起說」, 『北朝隋唐中國佛教思想史』, 京都:法藏館, 2000 ; 「敦煌写本にみる地論教学の形成」, 『地論思想の形成と變容』, 國書刊行會, 2010에서 지적되었다. 다만 아오키는 五門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는 데 그쳤을 뿐 각 문헌의 사상적 문제를 자세하게 고찰하지는 않았다. 또한 五門과 관련된 북조불교의 사상적 변천에 대해서는 荒牧典俊, 「北朝後半期佛教思想史序說」, 『北朝隋唐中國佛教思想史』, 京都:法藏館, 2000을 참조.

세 번째 「수도문(修道門)」을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중략) 이 「수도문」 가운데 세 품의 경문이 있다.

첫째, 곧바로 「현(賢), 성(聖)의 명칭(賢聖名字)」을 열거함이다.

둘째, 「학관(學觀)」 한 품이니, [각 계위의] 관행(觀行)과 법용(法用)을 밝힌 것이다.

셋째, 「석의(釋義)」 한 품이니, [각 계위의] 명칭에서 닦는 것과 이루는 경지가 말미암는 바를 밝힌 것이다.[5)]

아오키 타카시에 따르면 "오문"이란 불성문(佛性門) 중생문(衆生門) 수도문(修道門) 제문(諦門) 융문(融門)으로 이루어진 서위(西魏, 535-551) 시대 불전 분석의 표준으로, 특히 지론문헌 내 시기 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6)] 오문 구조를 반영한 문헌들은 예외 없이 6세기 전반기에 찬술된 지론학파의 문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본업경소』 또한 "오문"이나 "수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7)] 또한 지론학파의 소의경론인 『십지경론(十地經論, T26, no.1522)』

---

5) 從此已下, 經之第二, 次明「眞實根本分」. 上來明「發起正宗分」, 緣起既興, 正宗得顯故, 次明「眞實根本分」. 若作五門次第, 從此已下第三明「修道門」, 就此修道門中有三品經文. 第一, 直列「賢聖名字」. 第二, 「學觀」一品, 明觀行法用. 第三, 「釋義」一品, 解釋名字學觀所由.(『본업경소』 T85,747c-748a) 해당 구절은 山口弘江, 「『十地論義疏』と『大乘五門十地実相論』-周叔迦説の検討を中心として」, 『東洋學研究』 48, 2011 pp. 125-126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6) 五門의 내용은 돈황사본 『融卽相無相論』(BD5755)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丞相王五門佛性義』를 통해서 그 전체 명칭이 밝혀졌다.(BD5755 273-5행 "其五者何? 第一佛性門, 第二衆生門, 第三修道門, 第四諸諦門, 第五融門.) 아오키에 따르면 五門이란 法上과 그 주변의 지론 남도파의 기술법으로, 대개 西魏(535-551) 시대부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들이라고 규정된다. 青木隆, 앞의 책(2010) pp.55-56 참조. 현존사본 중 五門관련 문헌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十地論義疏』卷第一/卷第三(S.2741/S.2717/P.2104, T85 수록), ② 『瓔珞本業經疏』(S.2748), ③ 『大乘五門十地實相論』卷第六(BD03443), ④ 『融即相無相論』 (BD05755), ⑤ 『一百二十法門』 (擬題, BD06771, BD07808), ⑥ 『大乘五門實相論』(BD03106). 그 중 ③-⑥의 번각본은 青木隆 外, 『藏外地論文獻集成』, 서울:CIR, 2012(이하 "『집성』")에 수록되어 있다.
물론 단순히 이것만으로 『본업경소』의 지론학파 귀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후지타니가 지적한 것처럼, 본 문헌은 『十地經論』(T26, no.1522)을 여타의 인용경론과는 달리 상당히 원문에 충실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점, 후술하겠지만 法上의 저술로 전해지는 『十地論義疏』(T85, 2799, 이하 "『십지론의소』")와의 상응구절이 있다는 점에서 지론학파의 문헌임이 논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藤谷昌紀, 「敦煌本『本業瓔珞経疏』の引用経論について」, 『大谷大学大学院研究紀要』 19, 2002, pp.106-112 참조.

7) 주의해야 할 것은 『본업경소』가 엄밀한 의미에서 五門을 기본 구조로 삼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상기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본 문헌은 먼저 "正宗分"과 "眞實根本分"이라는 독자적인 과단을 제시한 후에, 다시 五門 중 修道門을 眞實根本分과 등치시키고 있다. 후반부의 과단이 어떠한

이나 보리유지(*Bodhiruci, 菩提流支, ?-508-535-?) 역 『입능가경(入楞伽經, T16, no.671, 이하 "10권 능가")』 등을 인용하고 있으며, 후술하겠지만 법상(法上, 495-580) 찬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와의 뚜렷한 상응 구절이 나타나는 등 본 문헌이 지론학파의 저술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본 문헌에서는 지론학파 특유의 심식설이나 연기설, 교판설 같은 교리적 특징들은 나타나지 않으며 경론의 인용 범위에 있어서도 여타의 문헌들과 차이가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본업경소』는 지론학파의 사상사 상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 아오키에 의해서 오문 관련 문헌군이 "지론종 제2기(535-560, 법상, 도빙道憑의 시대)"로 배정되었지만[8] 당 문헌군에 속하는 텍스트 각각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본업경소』의 유일한 선행 연구자인 후지타니 마사노리(藤谷昌紀)의 연구를 발판으로 본 문헌에 인용된 텍스트의 선후 관계 및 사상적 연관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9] 인용 문헌들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찬술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돈황사본의 시대 배정을 위해 필수적인 선행작업이며, 이를 통해서 그 텍스트의 작성 시기 및 사상적 배경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正宗分"을 논할 때 五門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후반부에서 다시 "眞實門中明四十二賢聖二種法身"(T85, 751c)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으며 修道門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에서, 『본업경소』의 과단은 五門과는 달리 正宗分->眞實根本分이라는 구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보았을 때 五門이라는 분류는 적어도 『본업경소』의 작성 이전부터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오키 또한 해당 문헌군을 "五門 문헌"이 아닌 "五門 '관련' 문헌"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青木隆, 앞의 책(2010) p.63 ; 山口弘江, 앞의 책(2011) pp.125-126 참조.

8) 青木隆, 앞의 책(2000) pp.200-201 부록1 「地論宗思想史年表」(青木隆, 앞의 책(2010) pp.63-64 재수록) 참조. 다만 아오키가 제시한 지론문헌의 시기구분은 그가 말한 것처럼 "편의"에 따른 것이지만, 논자가 확인한 한 현재까지 그의 설을 면밀히 검토한 후속 연구는 없다. 아오키가 제시한 시기 구분의 타당성 규명은 이처럼 시기별로 묶인 문헌군을 원점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문헌 간의 선후관계를 파악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다만 각 문헌 간의 선후관계는 곧바로 시대적인 확정으로 넘어갈 수는 없기에, 본고에서 밝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헌 간의 상대적인 선후관계일 뿐 절대적인 시대 배정은 아니다. 아오키 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후를 기약한다.

9) 이하, 본고의 고찰은 선행연구자인 고(故) 후지타니 마사노리(藤谷昌紀)의 2002년작 「敦煌本『本業瓔珞経疏』の引用経論について」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는 『본업경소』의 인용문헌들을 분석하여 본 문헌에 언급된 경론의 인용관계를 규명하여 본고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본고는 후지타니의 연구에 관한 정신적 후속편이라는 의식 하에 작성되었다.

본고에서는 고찰한 범위는 크게 『본업경소』가 인용하고 있는 경론의 범위와 여타 돈황사본과의 상응 관계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해당 문헌의 작성 하한선 및 『본업경소』가 작성될 당시 저자, 혹은 저술 그룹에서 활용했던 불교 문헌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후자는 돈황사본 내에서 『본업경소』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본 문헌은 전 텍스트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단편(斷片)일 뿐이므로 확인할 수 있는 인용 경론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II. 『본업경소』의 인용 경론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범위 내에서 『본업경소』에 인용되어 있는 경론들을 번역된 시기와 함께 제시한다. 아래 목록은 본 문헌의 선행 연구자인 후지타니의 작업에 더하여 논자가 확인한 몇 가지 경론을 추가한 것이며 그 중에는 『본업경소』에서 경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동일한 텍스트임이 확인된 문헌도 포함하였다. (추정 경론은 *표시)

① 확인된 인용 경론(번역 시기)

- 竺法護 역, 『修行道地經』(T15, no.606, 300년)
- 鳩摩羅什 역, 『維摩詰所說經』(T14, no.475, 弘始[399-416]년간)
- 鳩摩羅什 역, 『善臂菩薩經』(※『大寶積經』 T11, no.310 권93-94 수록, 5세기 초?)
- 佛陀跋陀羅 역, 『大方廣佛華嚴經』(T9, no.278, 義熙[405-418] 년간)
- 佛陀耶舍·竺佛念 역, 『四分律』(T22, no.1428, 412년)
- 曇無讖 역, 『大般涅槃經』(T12, no.374, 414년)
- 求那跋陀羅 역,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T12, no.353, 435-6년)
- 曇摩耶舍 역, 『樂瓔珞莊嚴方便品經』(T14, no.566, 5세기 초중반?)
- 疑經 『梵網經』(T24, no.1484, 5세기 중후반?)

- 曼陀羅仙·僧伽婆羅 역, 『寶雲經』(T16, no.658, 天監[502-519]년간)
- 元魏 菩提流支 역, 『十地經論』(511년)
- 元魏 菩提流支 역, 『入楞伽經』(513년)

＊鳩摩羅什 역, 『大智度論』(T25, no.1509, 405년)

＊曇無讖 역, 『大方等大集經』(T13, no.397. 「寶女品」, 412-428[玄始] 년간)

＊智嚴, 寶雲 역 『無盡意菩薩所聞經』(『大方等大集經』 T13, no.397. 권 27-30 수록, 424-453[元嘉] 년간)

② 미확인된 인용 경론

- 『數經』
- 『天海經』
- 『虛空藏經』(※『法上綠』 수록 西晉·聖堅 역, 『方等王虛空藏經』八卷?[10])

『본업경소』의 인용에 대응하는 경론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후지타니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본고에서 자세히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세 가지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문헌은 여타 지론문헌에서 인용 사례가 드문 『선비보살경』[11], 『*무진의경』[12], 『허공장경』[13], 『락영락경』[14]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전군이 인용되어 있는 또 다른 지론문헌이 존재한다면 지론문헌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유용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논자가 확인한 한 이러한 경전군을 언급한 지론 문헌은 『본업경소』가 유일하다. 이 경전들은 모두 북조의 경

10) 『開元釋教錄』 권4, "『方等王虛空藏經』八卷 〈亦云『虛空藏所問經』. 或五卷六卷. 第二出. 与法賢所譯『羅摩伽經』本同文異. 見晉世雜錄、出『大集經』."(T55, 518a) 참조

11) 『大寶積經』 권94 T11,534b 부분. 『본업경소』 T85,747b-c 인용.

12) 『大方等大集經』 권30, T13,209a-210a 부분. 『본업경소』 T85,753b-c 인용.

13) 未詳, 『본업경소』 T85,755a-b 인용. 인용 부분에는 『虛空藏經』에 입각해 舍利弗이 小乘에서 大乘으로 전향하였다는 고사(古事)를 인용하고 있는데, 후지타니에 따르면 "虛空藏"이라는 명칭을 지닌 현행 경론 중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은 없다. 다만 이러한 고사는 후대에 湛然의 『法華文句記』 등에도 『虛空藏經』의 교설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업경소』가 찬술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별개의 『虛空藏經』이라고 생각된다. 藤谷昌紀, 앞의 책(2002) pp.114-116 참조.

14) 『樂瓔珞莊嚴方便品經』 T14,937c-938a 부분. 『본업경소』 T85,755c 인용.

록(經錄)에 기록되어 있는데, 북조에서 찬술된 경록은 후대의 경록과는 달리 특정 지역에 유통되었던 경전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15] 따라서 『본업경소』의 인용경론이 특정 경록과 일치한다면, 그 자체로 본 문헌의 찬술 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업경소』에 인용된 경론은 각 경록 모두에 산견(散見)한다. 상기 인용경론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전군을 오오타케가 정리한 이곽(李廓) 경록, 법상(法上) 경록, 달마울다라(達摩鬱多羅) 경록의 기록들과 대응시켜보면 다음과 같다.[16]

① 『*無盡意經』 - 李廓『錄』

宋·智嚴譯 『無盡意菩薩經』六卷[17]

『無盡意菩薩經』六卷 <亦云『阿差末經』。見李廓『錄』>。(『歷代三寶紀』권10. T49,89b)

② 『樂瓔珞經』 - 李廓『錄』, 法上『錄』

姚秦·鳩摩羅什譯『樂瓔珞莊嚴經』一卷…<已上七經、見李廓『錄』、云「什譯」>

(『歷代三寶紀』권8. T49,78c)

宋·法海譯『樂瓔珞莊嚴方便經』一卷…『樂瓔珞莊嚴方便經』一卷 <一名『大乘瓔珞莊嚴經』。一名『轉女身菩薩問答經』。與晉世竺法護『順権方便經』同本異出>。…法上『錄』亦載。

(『歷代三寶紀』권10. T49,94a)

③ 『虛空藏經』 - 法上『錄』(?)[18]

西晉·聖堅譯『方等王虛空藏經』八卷…『方等王虛空藏經』八卷 <亦云『虛空藏所問經』。或五卷六卷。第二出。与法賢所譯『羅摩伽經』本同文異。見

15) 大竹晉, 앞의 책(2017) p.1004(일본어판 p.868)

16) 경록의 문구는 大竹晉, 「北朝經錄斷片集成」, 『地論宗の研究』, 東京:國書刊行會, 2017에서 인용하였다.

17) 오오타케는 본 경전이 실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역자가 智嚴으로 명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존 『大方等大集經』 권27-30에 수록된 「無盡意菩薩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大竹晉, 앞의 책(2017) p.1012(일본어판 p.895) 참조.

18) 『본업경소』에서 인용하고 있는 『허공장경』을 법상록의 『방등왕허공장경』과 동일시한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 『본업경소』가 "虛空藏經"으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현존 『허공장경』 등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혹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는 『방등왕허공장경』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을 거칠게 추정하였을 뿐이다.

晉世雜錄、出『大集經』>。已上九經並法上『錄』載、亦云「出別『錄』」。未詳>。(『歷代三寶紀』卷九。T49, 83bc)

④『善臂菩薩經』- 達摩欝多羅『錄』[19]

姚秦·鳩摩羅什譯『善臂菩薩所問經』二卷 …

右達摩欝多羅『錄』云「後秦沙門羅什譯。與『持人菩薩所問經』同本異譯」。

(『大周刊定衆經目錄』권4. T55,392c)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인용 경론과 경록의 대응관계 만으로는『본업경소』의 위치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본업경소』의 인용문헌과 경록의 대조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의의라면『이곽록』과『법상록』그리고『달마울다라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론들이 실제로는 함께 연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이다.

둘째, 본 문헌이『대집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문헌에서『무진의경』은 그 경명이 등장하지 않은 채로 길게 인용되어 있으며(T85, 753b-c), 해당 부분의 다음 단락에서는 다시『대집경』의「보녀품」이 역시 경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로 인용되고 있다(T85, 754a). 이처럼 경명의 언급이 없는 인용은, 당시『본업경소』를 작성한 그룹 내에서 해당 경전이 이미 익숙하게 참조되고 있었거나 주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참조되고 있었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알려진 것처럼 지론학파 내에서는『대집경』을 존중하는 흐름이 있었다.[20]『무진의경』또한『대집경』으로 편입된 경전이라는 점,『대집경』의「보녀품」이 이어서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문헌 또한 소위 지론학파 내『대집경』존중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무진의경』이 기록되어 있는『이곽록』이 508-512[永平] 년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오오타케의 추정에 의거한다면[21]『본업경소』가 작성될 당시에는

19) 이 때 "達摩欝多羅"는 Dharmottara, 즉 지론학파의 학장이었던 法上의 범어 명칭이라는 것이 여러 문헌을 통해 증명되지만, 경록이라는 측면에서 法上의『錄』과 達摩欝多羅의『錄』은 개별적인 문헌으로 간주된다. 大竹晉, 앞의 책(2017), pp.1002-1004(일본어판 pp.866-868).

20) 石井公成,『華嚴思想の研究』, 東京:春秋社, 1996 제2부 제2장 제2절「『大集經』尊重派の地論宗文獻」(pp.510-518) 참조.

『무진의경』이 『대집경』으로 편입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22)]

셋째, 『본업경소』가 지론학파의 저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흥미로운 인용 사례가 나타나는데, 바로 42계위를 해석하는 부분이다. 42계위란 습종성(習種性)/십주(十住)·성종성(性種性)/십행(十行)·도종성(道種性)/십회향(十迴向)의 30심(三十心)과 십지(十地), 등각(等覺)/금강심(金剛心), 묘각(妙覺)/불지(佛地)으로 이루어진 보살의 수행도이다. 같은 계통의 경전인 『인왕경』이나 『범망경』이 삼십심, 십지, 불지의 41계위설을 설하는 것과 달리 『영락본업경』은 제10지와 묘각 사이에 제11지인 등각을 설정하여 총 42개의 계위를 정립하였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본업경소』는 『영락본업경』 제2「현성명자품」 중 42계위의 명칭을 열거하는 부분에서 각 계위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경문을 인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대조를 위해서 『본업경소』의 구절과 대응 경론을 도표로 제시한다.(이하 대조의 용이성을 위하여 상응 구절의 번역은 생략)

『본업경소』(T85,748c-749b)	대응 경론
【十住】 “發心住”者, 是上進分善根人. 始入空界, 發菩提心, 亡絕萬相, 故名發心住. “留諦迦度秦言治地住”者, 常修空心淨八萬四千法門清淨行, 故名治地住也. “修行住”者, 前云修空心, 今明長養此心, 令一切行增進不失, 故名修行住. “生貴住”者, 生在佛家種性清淨故名生貴住. “方便具足住”者, 多習無量善根成就, 故名方便具足住也. “正心住”者, 成就第六般若, 故名正心住也. “不退住”者, 入無生惠必竟空界, 心心常行空無相願故. 名不退住. “童眞住”者, 從發心[23)]住不生到, 不起耶魔破菩提心故. 名童眞住也.	【『영락본업경』 권下, 「釋義品」, T24,1017a-b】 發心住者, 是上進分善根人. (중략) 常值佛法, 廣多聞慧多求方便, 始入空界住空性位, 故名爲住. (중략)佛子！治地住者, 常隨 [->修【宋】【元】【明】] 空心淨八萬四千法門, 清淨白, 故名治地住. 佛子！長養一切行, 故名修行住. 佛子！生在佛家, 種性清淨, 故名生貴住. 佛子！多習無量善根, 故名方便具足住. 佛子！成就第六般若, 故名正心住. 佛子！入無生畢竟空界, 心心常行空無相願, 故名不退住. 佛子！從發心不生倒, 不起邪魔破菩提心, 故名童

21) 大竹晉, 앞의 책(2017), pp.1001-1002(일본어판 p.866).

22)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대집경』의 편집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法王子住"者, 從佛王敎生解, 當紹佛位故. 名法王子住. "灌頂住"者, 從上九觀空, 得無生心最上, 故名灌頂住也. 【十行】 歡喜行者, 始入法空. 不爲外道邪誨所到入正位故. 多生慶悅, 名歡喜行. 得常化一切衆生. 皆法利衆生, 故名饒益行. (※無瞋恨行에 관한 설명 없음) 常住功德. 現化衆生, 故名無盡行. 命終之時, 無明鬼不能亂, 名離癡亂行. 生生常在佛國中生, 故名善現行. 於我無我, 乃至一切法不取著, 故名無著行也. 於三世佛法中常敬順, 故名尊重行. 說法授人動成物則, 故名善法行. 二帝 [->諦] 非如非相非非相, 故名眞實行也. **【十迴向】** 常行六道而入果報. 廣化衆生. 而不取著, 故名救護一切衆生離衆生相迴向. 觀一切法空. 得眞實心, 故名不憶 [->壞] 迴向. 三世佛法一切時行, 故名等一切佛迴向. 以大願力入一切佛國中, 供養一切佛, 故名至一切處迴向. 以常住三寶授與前人, 名無盡功德藏迴向. 習行相善無漏善而不二, 故名隨順平等善根迴向. 以觀善惡父母無二, 一合相, 故名隨順觀一切衆生迴向. 常照有無二諦一合相故. 名如相迴向. 以諸法無二. 般若無生. 二諦平等, 觀三世一合相故. 名無縛解脫迴向. 覺一切法第一義諦中道無相. 一切法皆一照相故. 名法界無量迴向. **【十地】** "歡喜地"者, 始離世間, 初證聖處, 多生慶悅, 故名歡喜地. 離能起誤心犯戒煩惱垢等, 清淨戒具足, 故名離垢地.	眞住. 佛子！從佛王敎中生解, 當紹佛位, 故名法王子住. 佛子！從上九觀空, 得無生心最上, 故名灌頂住. 【『영락본업경』 권下, 「釋義品」, T24,1017b】 是故佛子！從灌頂心進入五陰法性空位, 亦行八萬四千般若波羅蜜, 故名中十行佛子. 就中始入法空, 不爲外道邪論所倒, 入正位, 故名歡喜行. 佛子！得常化一切衆生, 皆法利衆生, 故名饒益行. 佛子！法實得法忍, 心無我無我所, 故名無瞋恨行. 佛子！常住功德, 現化衆生, 故名無盡行. 佛子！命終之時, 無明鬼不亂不濁, 不失正念, 故名離癡亂行. 佛子！生生常在佛國中生, 故名善現行. 佛子！於我無我, 乃至一切法空, 故名無著行. 佛子！三世佛法中常敬順, 故名尊重行. 佛子！說法授人動成物則, 故名善法行. 佛子！二諦非如非相非非相, 故名眞實行.(중략) 【『영락본업경』 권下, 「釋義品」, T24,1017b-c】 佛子！常以無相心中常行六道而入果報, 不受而受諸受, 迴易轉化, 故名救護一切衆生離衆生相迴向. 佛子！觀一切法但有受, 但有用, 但有名, 念念不住, 故名不壞迴向. 佛子！三世諸佛法一切時行, 故名等一切佛迴向. 佛子！以大願力入一切佛國中, 供養一切佛, 故名至一切處迴向. 佛子！以常住三寶授與前人, 故名無盡功德藏迴向. 佛子！習行相善無漏善而不二, 故名隨順平等善根迴向. 佛子！以觀善惡父母無二, 一相一合相, 故名隨順等觀一切衆生迴向. 佛子！常照有無二諦, 一切法一合相, 故名如相迴向. 佛子！以諸法無二、般若無生、二諦平等, 過去一合相、現在一合相、未來一合相, 故名無縛解脫迴向. 佛子！覺一切法第一義諦中道無相, 一切法皆一照相, 故名法界無量迴向. **【『십지경론』 권1, T26,127a】** **成就無上自利利他行, 初證聖處多生歡喜, 故名歡喜地.** **離能起誤心犯戒煩惱垢等, 清淨戒具足, 故名離垢地.**

隨聞思修等照法顯現不忌, 故名明地. 煩惱戒薪智火能燒, 故名災地. 得出世間智方便善巧, 能度難度, 故名難勝地. 般若波羅蜜行有間大智現前, 故名現善地. 善修無相行功用, 究竟能過世間二乘, 入出世間道, 故名遠行地. 報行純熟無相無間, 故名不動地. 無礙力說法. 成就利他行, 故名善惠地. 得大法身具足自在, 故名法雲地. 【等覺】 功行滿足蹬大山臺, 心心無爲行過十地故. 名無垢地.	**隨聞思修等照法顯現, 故名明地.** **不忘煩惱薪智火能燒, 故名焰地.** **得出世間智方便善巧, 能度難度, 故名難勝地.** **般若波羅蜜行有間大智現前, 故名現前地.** **善修無相行功用, 究竟能過世間二乘出世間道, 故名遠行地.** **報行純熟無相無間, 故名不動地.** **無礙力說法, 成就利他行, 故名善慧地.** **得大法身具足自在, 故名法雲地.** 【『영락본업경』 권下, 「釋義品」, T24,1018b】 佛子！菩薩爾時住大寂門中品忍觀, 功行滿足登大山臺, 入百千三昧, 集佛儀用唯有累果無常生滅, 心心無爲行過十地解與佛同, 坐佛坐處. (중략) 故入金剛三昧, 一相無相寂滅無爲, 故名無垢地.
【妙覺】 妙觀上忍大寂無相, 唯以一切衆生緣生善法, 累外之覺體照精微故. 名妙覺地也.	【『영락본업경』 권下, 「釋義品」, T24,1018b】 佛子！妙觀上忍大寂無相, 唯以一切衆生緣生善法, 亦自持一切功德, 故名佛藏.

상기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본업경소』는 30심에 대해 『영락본업경』을 인용하여 설명한 후, 十地에 대해서는 『십지경론』의 설명을 삽입한다. 그리고 마지막 등각과 묘각에 대해서는 다시 『영락본업경』의 구절에 의거하여 해당 개념을 주석하고 있다. 즉 42계위에 대한 『본업경소』의 해설은 기본적으로 주석 대상인 『영락본업경』 권下 「석의품(釋義品)」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인용하지만, 십지의 계위에 대해서만 『영락본업경』이 아닌 『십지경론』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본업경소』를 찬술한 작자 혹은 그룹에서 십지에 대한 이해가 『영락본업경』에서 『십지경론』으로 넘어가고 있었거나 적어도 십지의 해석에 있어서 『십지경론』의 설을 중시하였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S.2748 “心心.”

III. 『십지론의소』와의 관계

아래에서는 『본업경소』와 상응 구절을 지니고 있는 돈황사본들을 제시하고, 각 문헌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고찰할 것은 『십지론의소』와의 관계이다. 법상(法上)의 것으로 전하는 『십지론의소』는 초기 지론학파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본업경소』와 『십지론의소』에 거의 동일한 구절이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분석을 위해 두 문헌의 상응 구절을 병기하면 다음과 같다.

『본업경소』(T85, 755c)	『십지론의소』(T85, 766b–c)
	【問曰】何故諸戒之中先明不殺戒者? **【答曰】菩薩建志化物爲懷. 殺惱衆生與慈相違. 若不止殺, 物見生懼, 於化有隔. 故諸惡之中, 創離殺生也.**
【問曰】**若論十善, 止捨十惡爲十善.** 『楞伽經』云: "初地菩薩已斷三界業果俱盡." **今明二地菩薩行, 應久行十善, 何故始云"自行十善"也?**	【問曰】『楞伽經』云:"初地菩薩斷三界業果俱盡." **何故此中, 二地方斷十惡者?**
【答曰】**十惡名同, 論體**唯一違理. 若廣逐事, 名相恒沙, 略要有四.	【答曰】**若論十惡,** 唯一違理. 若廣逐事, 名相恒沙, 略要有四.
一者異心十惡. 三界凡夫違事損物, 起心造作.	一者異心十惡. 三界凡夫違事損物, 起心造作.
二者異(+心?)習氣十惡. 二乘迷理違事, 失念造作.	二者異心習氣十惡. 二乘迷理違事, 失念造作.
三者即心十惡. 忘相違理, 地前菩薩之所造作.	三者即心十惡. 妄相違理, 地前菩薩之所造作.
四者即智十惡. 相順體違, 初地已上十聖所造作.	四者即智十惡. 相順體違, 初地已上十聖所作也.
無惡之惡. 故『瓔珞經』云:	無惡之惡. 故『**樂**瓔珞經』:
以斷生死爲殺生也, 斷無所斷以爲不殺.	以斷生死爲殺生, 今斷無所斷爲不殺. **盡下皆爾, 故至云"生死本無體示"也.**
菩提無人與而自取以爲盜, 今得無所得爲不盜.	菩提無人與而自取以爲盜, 今得無所得爲不盜.
智慧者求法不用欲故欲, 如是名邪行. 今明無求可求名不邪婬**也**.	智慧者求法不用欲故欲, 如是名邪行. 今明無求可求名不邪婬.
一切語妄名妄語. 今妄無妄相語.	**至寂無言**一切語名妄語. 今妄無妄想**名不妄**語.
破壞諸外道名兩舌. 今破無所破名不兩舌.	破壞諸外道名兩舌. 今破無所破名不兩舌.
說麁惡語敎化衆生名惡口. 今化無所化名不惡口.	說**於**麤惡語敎化諸衆生名惡口. 今化無所化名不惡口.
隨因緣而說是名爲綺語. 今**明**因緣空故名不綺語.	隨因緣而說是名爲綺語. 今因緣空故名不綺語.
施一切衆生樂名貪. 今施無施相名不貪.	施一切衆生樂名貪. 今施無施相名不貪.
正法欲滅時, 與外人諍訟名瞋. 今諍無所諍名不	正法欲滅時, 與外人諍訟名瞋. 今諍無諍相名

瞋也. 執正之解求於平等名邪見. 今見無所見名不邪見. 此十惡名同而旨異. **今明二地菩薩彰止十惡行十善者, 此是即智十善. 故今始彰"自行十善, 敎人行十善"也.**	不瞋. 執正之解求於平等名邪見. 今見無見相名不邪見. 此十惡名同而旨異. **故云:"眞僞殊倫", "名同詮諱 [->違?] "等也. 正可望詮虛會, 不得尋名定執.**

상기 문답에 담겨 있는 교학은 지론학파의 사상 형성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구절이다. 먼저 해당 구절에서 '이심(異心)' '이심습기(異心習氣)' '즉심(卽心)' '즉지(卽智)'로 이루어진 네 가지 십악의 구조는 소위 지론학파 성립 이전 북위 낙양기의 불교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문헌에 한하여 보았을 때, 이 구절은 번뇌, 특히 『승만경(勝鬘經)』의 주지번뇌(住地煩惱)에 대한 해석을 통해 나온 개념인 "이심(異心)"과 "즉심(卽心)"의 번뇌를 응용한 구절로 보이기 때문이다.[24] 이것을 고려할 때, 상기 인용문의 네 가지 십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네 가지 십악의 구조〉

異心十惡	——	凡夫	——	四住地에 의한 十惡
異心習氣十惡	——	二乘	——	四住地의 習氣에 의한 十惡
卽心十惡	——	地前菩薩	——	無明住地에 의한 十惡
即智十惡	——	初地以上	——	智慧에 의한 十惡(無惡之惡)

따라서 상응 구절에서 논한 십악의 구분은 낙양기 불교의 번뇌설을 확장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문헌의 문장이 거의 자구 단위로 호응한다는 것은 한 문헌이 다른 문헌을 참조했거나, 혹은 두 문헌 모두에서 참조하고 있는 제3의 자료가 있었음을 의미한다.[25] 하지만 만약 두 문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제3

24) 大竹晉, 「地論宗の煩惱說」, 『地論宗の硏究』, 東京:國書刊行會, 2017, pp.141-144 참조.

25) 본 구절을 지적한 후지타니는 두 문헌 간의 선후 관계를 논하지 않고 "두 주석서에 거의 동일한 진술이 보인다는 것은, 한 편이 한 편을 인용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양자가 공통의 소스 혹은

의 텍스트가 없다면, 그리고 『본업경소』의 해당 구절이 후대의 가필이 아니라면, 논자는 『본업경소』의 구절이 『십지론의소』의 기술보다 선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주석의 맥락이다. 먼저 『본업경소』가 주석하고 있는 경문은 "스스로 십선(十善)을 행하고, 타인들이 십선(十善)을 행하도록 교화한다("自行十善, 敎人行十善" T24, 1014c)."[26]는 부분이며, 질문에서도 그 구절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업경소』에서는 질문에서 "십악(十惡)을 멈추고 버리는 것을 십선(十善)이라 한다("止捨十惡爲十善")"고 지적한 후 계위를 기준으로 십악을 나누고 있다. 이에 반해 『십지론의소』에서 주석하고 있는 내용은 "살생을 떠난다("遠離殺生," 『십지경론』, T26, 146a)"는 구절에서 출발하여 전체의 논의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후에도 계속 불살생을 중심으로 주석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해당 문구는 중심 논의에 추가된 논의로 보인다.

두 문헌의 결론 부분을 보면 문답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본업경소』에서는 "지금 제2지의 보살이 십악을 멈추고 십선을 행함을 설명한 것은 [앞서 논한] 즉지십선(即智十善, 즉, 즉지십악의 각 항목 다음의 '今~'으로 시작되는 부분[27])이다. 그러므로 [제2지에야] 비로소 '스스로 십선을 행하고 타인들이 십선을 행하도록 교화한다'고 하는 것이다.("今明二地菩薩彰止十惡行十善者, 此是即智十善. 故今始彰'自行十善, 敎人行十善'也.")"라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초지에서 끊는 것은 즉심(即心)의 십악이며, 즉지(即智)의 십악은 오히려 초지에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즉지의 십악은 제2지에 와서야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상기 인용문의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본업경소』의 문답은 구절로도 내용적으로도 최초의 질문과 일치하며 그 내용 또한 답변 내의 즉지십악과

전승에 기반하여 기술한 것이라고 상정할 수도 있다."고만 언급하였다. 藤谷昌紀, 앞의 책(2002), p. 110.

26) 이 구절은 구마라집 역 『摩訶般若波羅蜜經』 권5 「問乘品」 "云何名尸羅波羅蜜? 須菩提, 菩薩摩訶薩以應薩婆若心, 自行十善道亦敎他行十善道, 以無所得故. 是名菩薩摩訶薩尸羅波羅蜜."(T8, 250a)의 구절과 상응한다.

27) 해당 구절의 전거가 되는 『[樂]瓔珞經』은 曇摩耶舍 역 『樂瓔珞莊嚴方便品經』(T14, no.566)의 구절을 의용한 것이다. 藤谷昌紀, 앞의 책(2002), pp.108-110.

즉지십선을 구분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 『십지론의소』는 결론 부분에서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이 다르다' '명칭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등이라 하는 것이다. 말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집착 없이 이해해야지 언어[적 표현만]을 따라 고정적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故云:'眞僞殊倫', '名同詮違'等也. 正可望詮虛會, 不得尋名定執.")"라고 맺고 있는데, 이는 최초의 질문인 "어째서 제2지에서야 비로소 십악을 끊을 수 있는가?("二地方斷十惡者?")"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즉지십악과 즉지십선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상응 구절에 나타난 질문의 핵심은 '제2지'에 있다. 왜 初地가 아닌 제2지에서 十善을 닦느냐는 것이다. 『십지론의소』의 작성자는 『십지경론』에서 십선 각각의 조목을 자세히 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을 불필요하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초지 이상에서 행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십악(=초지에서 얻음)과, 그것과는 다른 십선(=제2지에서 얻음)을 구분하고 있는 『본업경소』의 의도는 『십지론의소』에 드러나지 않는다. 『십지론의소』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업경소』의 즉지십악과 즉지십선을 구분하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본의 상응 구절 중 『본업경소』의 문답 쪽이 『십지론의소』의 문답보다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두 문헌이 공히 참조하고 있는 제3의 문헌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상의 논의로는 두 문헌의 선후 관계를 확정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자는 해당 구절을 기준으로 『본업경소』가 『십지론의소』에 선행함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기 구절은 10권 능가[28]의 설을 인용하여 "초지의 보살이 삼계의 업과(業果)를 모두 끊어버린다(初地菩薩斷三界業果俱盡)"는 지론학파의 교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본업경소』의 다른 구절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초지에서

28) 후지타니의 고찰에 의하면, 해당 구절에서 언급된 『능가경』은 보리유지 역 10권 능가 「五法門品」 "菩薩得初歡喜地時, 證百金剛三昧明門, 捨離二十五有一切果業, 過諸聲聞辟支佛地."(T16, 557c)를 말한다. 藤谷昌紀, 앞의 책(2002), p.110 참조.

삼계의 번뇌를 끊는다"는 교설이 지론학파의 대표적인 주장이라는 점은, 예를 들어 돈황출토 교리집성문헌 S.4303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문:] …제7지[29] 보살[의 지위에서야] 비로소 삼계를 벗어난다. 『십지경』의 글에서도 또한 "초지의 보살은 악취를 떠나며, 제7지의 보살은 이승(二乘)을 넘어선다."[30]고 하였다. 어째서 십지론사(十地論師)들은 모두 "초지보살이 삼계를 벗어난다."고 하는가?"[31]

즉 여러 경문에서 제7지에서 삼계를 벗어난다는 기술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초지에서 삼계를 벗어난다"는 해석이 당시 지론학파의 정론이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십지경론』이나 10권 능가와 같은 지론학파의 소의경론의 설, 그리고 지론학파의 사상을 정립한 보리유지의 교설에 근거한 이해로 보인다.[32]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영락본업경』의 설과 다르다. 『영락본업경』은 초지가 아닌 제7지에서 삼계의 과보를 완전히 끊는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 초지에서부터 제7지에 이르기 동안 삼계의 업과를 모두 조복시켜 남음이 없다.[33]

구절의 유사성으로 보자면 이 구절("初地乃至七地, 三界業果俱伏盡")이 상기

---

29) 해당 내용을 七地로 본 것은 S.4303 7행, "人者引『經』文'初地離惡趣, 七地過二乘'者, ……" 및 13-14행 "'初地離惡趣, 七地＊＊乘' 者, …"에 의거한다.

30) 해당 경문은 『十地經論』「初歡喜地」, "斷一切惡道, 故生歡喜心."(T26,136b) 및 「第七遠行地」, "是菩薩……過聲聞辟支佛地."(T26,177a)를 참조. 또한 S.4303 7행 "人者引『經』文'初地離惡趣, 七地過二乘'" 도 마찬가지의 경문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31) 初 [->七?] 地菩薩始出三界. 『十地經』文亦云: "初地菩薩遠離惡趣, 七地菩薩出過二乘." 何故十地論師皆言"初地菩薩出於三界"? (S.4303 2-4행, 『집성』, p.213)

32) 예를 들어 보리유지의 강의록인 『金剛仙論』의 다음 구절 참조: 『金剛仙論』 권4, "出世間淨土第一義莊嚴, 非三界所攝. 以初地以上聖人報出三界土也." (T25,826c) ; 권7, "菩薩證得初地無生二種無我見道之解, 具足四種深心, 永斷三界四住習氣無明麁品." (T25,846b-c)

33) 初地乃至七地, 三界業果俱伏盡無餘.(『영락본업경』, T24, 1016c)

문답 부분의 질문에 『능가경』으로 인용된 문구(“初地菩薩已斷三界業果俱盡”)와 오히려 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심지어 『본업경소』의 다른 부분에서는 상기 『영락본업경』의 경문을 따라 제7지에서 삼계의 과보를 모두 끊는다는 설명 또한 존재한다. 삼계의 과보를 벗어남에 대한 상이한 두 가지 이론이 한 문헌 내에서 모두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무생인(無生忍)은 과(果)의 업도를 조복하고”란, 삼계의 번뇌가 다한 제7지의 과보이다. 또한 무생관(無生觀)으로 삼계의 과보를 없앰이다.[34)]

『본업경소』에 삼계의 과보를 끊는 경지를 제7지인가, 아니면 초지인가에 대한 설명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본 문헌의 성립기에 북조불교의 사상적 변천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론학파 성립 이전 북조에서는 『영락본업경』의 교설 등에 의거하여 삼계의 번뇌를 제7지에서 완전히 끊는다는 설이 주장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론학파 성립 직전 북조에서 이루어진 불교 연구의 실록인 돈황출토 교리집성문헌 P.2908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인용되고 있다.

> 만약 작고하신 혜맹(惠猛) 도유나(都維那)[35)]의 이해에 따르면, (중략) 범부의 [수(受)·상(想)·식(識)이라는] 세 가지 마음 중의 무명(無明)은 미세하기 때문에 삼계를 넘어선 제7지 이상의 승해(勝解)를 방해한다. 그러므로 제7지 이상에서야 비로소 이 세 가지 마음 중 즉심(卽心)의 무명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제6지 이하에서는 즉심의 무명이 있다 해도 [그것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다만 행온(行蘊) 중 이심(異心)의 번뇌를 끊을 뿐이다.[36)]

---

34) “無生忍伏果業道”者, 三界惑盡七地寂［->家］果. 又無生觀, 滅三界果也.(『본업경소』, T85,758c-759a)

35) “惠猛”은 孝文帝(재위 471—499)부터 宣武帝(재위 499—515) 시기까지 북위의 都維那를 역임했던 북조의 명승이다. 『집성』 p.105 및 p.180(각주 448) 참조.

36) 若依故猛都解時, 凡夫識想受中無明, 由故不斷. 何以故然? 欲明凡夫三心中無明細, 故障三界外七地以上勝解. 是以七住以上, 方斷此三心中卽心無明. 在六住以下, 雖有卽心無明, 一向不斷, 但斷行陰中異心惑. (P.2908 565-569행, 『집성』 p.180)

『본업경소』에 이 두 가지 설이 모두 등장한다는 것은 본 문헌이 위치한 사상적 지점을 방증한다. 제7지에 이르러서 무명(=즉심의 번뇌)가 끊어진다는 낙양기 불교의 설이 지론학파의 성립 이래 초지에서 끊어진다는 설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본 문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지론학파 이전 낙양기의 설이 지론학파의 이론과 동등한 지위에서 혼재되어 있는 『본업경소』 쪽이 『십지론의소』보다 더 이른 시기의 지론학파의 문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37]

이처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론이 한 텍스트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 돈황출토 지론문헌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본업경소』와 마찬가지로 초기 지론문헌 중 하나로 간주되는 『십지론의소』의 경우에도 텍스트 전체에서 상이한 해석들이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다.[38] 동일한 주제에 대한 상이한 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문헌들이 완결된 체계를 갖춘 논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돈황출토 지론문헌들이 당시 이루어졌던 경론의 연구와 해석의 변천을 담은 "실록(實錄)"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39] 『본업경소』 또한 그러한 "실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 문헌에 나타난 통일되지 않은 이론들은 역설적으로 본 문헌이 작성될 당시의 현장감을 전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업경소』를 법상의 저술로 볼 수 있는가? 두 문헌 간의 분명한 상응 구절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 절의 인용 경론에서 확인한 것처럼 『본업경소』의 인용 경론 중 법상의

---

37) 잘 알려진 것처럼 『십지론의소』에는 지론학파 특유의 심식설 및 三身說, 교판 등이 반영되어 있으나 『본업경소』에서는 해당 구절 이외에 『십지론의소』에 나타난 지론학파 특유의 이론은 찾지 못하였다.

38) 김천학, 「법상(法上) 『십지론의소』 「가분석」의 전개」, 『지론종 연구』, 서울:CIR, 2017 ; 박보람, 「六相說의 변천 과정 고찰－『十地經』부터 淨影寺 慧遠까지를 대상으로」, 『지론종 연구』, 서울:CIR, 2017 등을 참조.

39) 예를 들어 池田将則, 「慧遠 『大般涅槃經義記』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동아시아불교문화』 26, 2016에서 다룬 『열반경』 주석서의 변천과정 참조. 이케다가 밝힌 것과 같이, 하나의 텍스트는 애초부터 완결된 논서로 성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수정과 편집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져 나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전이 존재하지 않고, 상기 구절을 제외하면 두 문헌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에서 『본업경소』를 법상의 저술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십지론의소』의 저술 당시 『본업경소』가 참조되었거나 공통의 저본이 되는 제3의 텍스트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본업경소』의 저술 또한 법상의 주변[40]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IV. 『인왕반야실상론』과의 관계

『본업경소』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본 문헌과 뚜렷한 연관 구절을 가지고 있는 문헌을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인왕반야실상론권제이(仁王般若實相論卷第二, 나카무라 후세츠中村不折[1866-1943] 소장문헌. T85, no.2744 수록, 이하 "『인왕실상론』")』가 그것이다. 『인왕실상론』은 전반부가 결락된 돈황사본으로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T8, no.246, 이하 "『인왕경』")』 중 하권에 해당하는 「산화품(散華品)」, 「수지품(受持品)」, 「촉루품(囑累品)」에 대한 주석 부분이 남아 있다.[41] 『본업경소』와 『인왕실상론』은 특히 교리설명에 있어 분명한 상응 구절이 확인되는데, 이하에선 현재 시점에서 확인된 각 구절의 관계를 논하도록 한다.

---

40) 이 때 "주변"이란 단순히 북조에서 『십지경론』을 중심으로 교학 연구를 진행했던 '법상이 포함된 집단'이라는 느슨한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41) 시대 미상, "仁王般若實相論卷二, 比丘顯秀寫, 流通後代化化不絕."이라는 後記가 현존하지만 顯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인왕실상론』에 대한 언급은 『佛書解說大辭典』 권8 p.396와 矢吹慶輝, 『鳴沙餘韻: 敦煌出土未傳古逸佛典開寶 編著 1: 解說編』 京都:臨川書店, 1980(1930), pp.93-94의 기초적인 서지 정보, 그리고 妻木直良, 「燉煌本仁王般若実相論に就て」, 『宗教研究』 3-2, 1926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츠마키는 『인왕실상론』이 구마라집 시대에 즈음한 4세기 말~5세기 전반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그 성립 시기는 좀 더 후대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大正本을 기준으로 『인왕실상론』을 인용하되 사본을 검토하여 약간의 교정을 가하였다. 사본 이미지는 磯部彰(編), 『中村不折舊藏禹域墨書集成 : 台東区立書道博物館所藏』, 東京:二玄社 2005의 사진본을 참조. 아울러 츠마키의 선행 연구 및 사본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센슈대 사토 아츠시(佐藤厚) 선생께서 알려주셨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먼저 두 문헌에서는 30심, 즉 습종성, 도종성, 성종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왕실상론』-①(T85,161b-c)	『본업경소』-①(T85,751c)
"習種性"者, 者 [->此?] 人創修入理智微, 知身有性, 故云"習種性."… "性種性"者, 自體能解己身中性, 故云種性(->性. 種?) 者, 正因之理. 與佛果爲種, 不從因生, 不爲物壞, 故云言"性種性."… "道種性"者, 能與初 [+地?] 爲道, 故云"道種性."	"習種性"者, 此人創修入理智微, 要由從師學習, 方能得知己身有性, 故云"習種性"也. "性種性"者, 初言"性"者, 此人習解明利性, 自能解己身中性. 後言"種"性者, 此正因之理, 與佛果爲種, 不從因生, 不爲物壞, 故言"種性"也. "道種性"者, 前習種性得假名空, 性種性得五陰空. 今道種性假實並觀, 能與初地爲道, 名爲"道種性"也.

상기 구절은『인왕실상론』과『본업경소』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그 선후 관계를 논한다면『본업경소』-①의 문장이『인왕실상론』-①의 그것을 참조했다고는 볼 수 없다.『인왕실상론』-①의 문구는『본업경소』의 문구를 거칠게 축약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단순히 축약된 것이 아니라『인왕실상론』-①의 문구는 본 문장이 가진 의도를 잃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습종성에 관한 설명에서『본업경소』-①에 기술된 것과 같이 "반드시 스승을 좇아 학습(學'習')해야만 비로소~(要由從師學'習', 方能~)"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습(習)'종성이라는 명칭의 설명이 완전해질 수 있다.『인왕실상론』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설명이 온전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인왕실상론』이『본업경소』의 내용을 참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반대로『본업경소』의 설명이『인왕실상론』의 설명을 전제로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도 존재한다. 불보살이 설법을 할 때 갖추는 공덕 중 하나인 사무외(四無畏)에 관한 설명이 그것인데, 다시 두 문헌의 상응 구절을 제시한다.

『인왕실상론』-②(T85,162c)	『본업경소』-②(T85,746c)
“我是一切智人”者, “如是菩薩, 求五明處, 為無上菩提大智衆具究竟滿.” 故名為一切智人, 釋一切智無畏滅三界癡等煩惱.	云何為四? 一, 我是一切智人. 說已所知. 訓匠於佛 [->物] , 外人執事來難: ‘如來於弟子有問, 似若不知.’ 如來答言: ‘我順俗時宜非為不達.’ 於此難中無有畏相, 安住聖處, 名一切智無畏.
“我相已盡”者, 釋漏盡無畏.	第二, 漏盡無畏. 外人難言: ‘如來罵提婆達多, 似若是嗔, 摩羅睺羅頭, 似若有愛.’ 佛言: 應見剛強難 [->語] 化者, 罵提婆達多. 應見慈養生善者, 摩羅睺羅. 非謂有嗔愛也.‘ 於此難時無有畏相, 第二無畏.
“智(->知)地地中有所出, 故名「出道」”者, 名無漏出要道也. 釋盡苦道無畏.	第三, ‘煩惱障道無畏’者. 外人難言: ‘須陀洹人得初果道, 猶有煩惱, 故知煩惱不障道.’ 如來答言: ‘障處有別, 但八十八結障須陀洹, 思惟四結障後三果, 非謂不障.’ 於此言中無有畏相, 是第三無畏.
“有所不出, 故名「障道」”者, 名煩惱障也. 釋障道無畏逆三界疑。	第四無畏 [->漏?] 出要者, 外人難言: ‘無漏不出要. 何以得知? 須陀洹雖得無漏, 猶有七生七死.’ 如來答言: ‘非為不出, 但凡夫生死無量, 須陀洹斷之至七, 故言出.’ 於此言中無有畏相, 名第四無畏.

『본업경소』는 외도와 여래의 문답[42]을 예시로 들어 사무외가 어째서 ‘두려움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세련되게 보여주고 있다. 사무외에 관한 『인왕실상론』과 『본업경소』의 구절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그 구성은 여전히 『본업경소』 쪽이 자세하고 완결적이다. 그러나 『본업경소』-②에는 사무외의 세부 항목인 일체지무외(一切智無畏), 누진무외(漏盡無畏), 장도무외(障道無畏), 진고도무외(盡苦道無畏) 중 “盡苦道無畏” 항목이 빠져 있고, 대신 『인왕실상론』-②와 상응되는 용어인 “無漏出要”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술은 『인왕실상론』-②에서 “[경전에서] ‘각각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출도(出道)」라 한다’고 한 것은 ‘무루라는 [번뇌를] 벗어나는 핵심적인 길(無漏出要道)’이라 이름한다. [이것은] 진고도무외(盡苦道無畏)를 해석한 것이다

42) 『본업경소』에서 四無畏를 해석할 때 언급된 고사들도 흥미롭지만 그 전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知地地中有所出, 故名「出道」"者, 名無漏出要道也. 釋盡苦道無畏)."라는 기술에 의거해 이해할 때 "無漏出要"가 "盡苦道無畏"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왕경』의 경문에 언급된 "出道"라는 용어에서 "出要道"가 도출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30심의 상응 구절 고찰에 의해 내린 결론과는 정 반대로, 『본업경소』-②가 『인왕실상론』-②의 내용을 참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텍스트에 나타난 교리 해석에 있어서 상호 참조해야 이해되는 부분이 교차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문헌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①, ② 모두에서 『본업경소』의 내용이 『인왕실상론』보다 자세하고 완전한 형태라는 점에 의거한다면, 『인왕실상론』의 해석을 증보한 형태가 『본업경소』로 보는 것이 가능할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30심에 관한 『인왕실상론』의 불완전한 설명은 수차례 필사를 거치며 생긴 글자의 결락 탓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반대로 『본업경소』의 자세한 설명을 『인왕실상론』에서 축약된 형태로 거칠게 인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중 논자는 전자가 두 문헌 간의 선후관계에 더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왕실상론』의 내용이 지론학파의 것, 다시 말해 지론학파의 문헌인 『본업경소』을 참조한 지론학파의 텍스트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왕실상론』의 찬술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실상론(實相論)"이라는 서명(書名)은 돈황사본 『대승오문'실상론'(大乘五門實相論)』이나 『대승오문십지'실상론'(大乘五門十地實相論)』과 같이 6세기를 전후해 나타난 북조 찬술 문헌이 지니는 특징 중 하나이다.[43] 그런데 『인왕실상론』에는 『본업경소』 등에서 보이는 오문에 대한 언급 뿐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지론문헌에서 인용되고 있는 『십지경론』에 대한 기술도 전무하다.[44] 이렇게 본다면 두 문헌의 성립은 『인왕실상론』 -> 『본업경소』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본업경소』의

43) 『집성』 p.502.

44) 논자가 확인한 한 『인왕실상론』에서 인용된 경론은 『優婆塞戒經』, 『梵網經』, 『維摩經』, 『地持經』, 『영락본업경』이 있지만 문헌 자체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해당 문헌에 관한 본격적인 고찰은 후일을 기약한다.

저술 단계에서부터 지론학파의 사상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왕실상론』을 지론문헌으로 언급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이후 지론문헌 내에서 『본업경소』와 『인왕실상론』의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에도 두 문헌 간에 자구 수준의 상응관계가 나타나며, 그 안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된다는 것은 두 문헌이 동일 저자, 혹은 그룹에서 저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락본업경』과 『인왕경』은 일찍부터 동일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겨져 왔다.[45] 그렇다면 『본업경소』와 『인왕실상론』도 동일한 그룹에서 저술되었던 것은 아닐까. 나아가 『인왕실상론』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지론학파의 교설이 『본업경소』에 보인다는 점에서, 두 문헌은 6세기경 북조의 불교 그룹이 점차 지론학파의 교설을 수용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V. 맺으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업경소』에는 북조의 경록에 산견(散見)하는 경전들이 함께 인용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선비보살경』, 『*무진의경』, 『허공장경』, 『락영락경』과 같이 이후 지론학파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전들이 포함되어 있다.
2) 『본업경소』에는 여러 부분에서 『십지경론』이 인용되고 있다. 그 중 42계위설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영락본업경』에 의지하고 있지만, 십지 부분의 해석은 『십지경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본업경소』와 『십지론의소』는 거의 동일한 형태의 구절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보았을 때 『본업경소』가 법상(法上) 주변에서 성립되었을

45) 예를 들어 P.2908 304-305행, "若依『仁王波若』, 『瓔珞經』解, 凡有五忍"(『집성』 p.158) 이하 五忍에 관한 논의 참조.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구절을 기준으로 문헌 성립의 선후 관계를 배정할 수 있다면 『본업경소』가 『십지론의소』보다 선행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본업경소』와 『십지론의소』의 상응 구절에는 "초지에서 삼계를 벗어난다"는 지론학파의 설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본업경소』의 작성 이전부터 지론학파의 교설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업경소』에는 『영락본업경』의 설을 따라 "7지에서 삼계를 벗어난다"는 설도 등장하기 때문에 당시 지론학파 내에서 두 가지 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존하고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본업경소』와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는 문헌으로는 또 다른 돈황사본인 『인왕실상론』이 있다. 양 문헌은 분명한 상응 구절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간에 참조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편, 『본업경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는 지론학파의 교리들이 『인왕실상론』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두 문헌이 동일한 그룹에서 찬술되었다는 점, 그리고 동일한 그룹 안에서도 사상적인 변천과정이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본고는 『본업경소』의 성립 하한선, 그리고 상응 구절을 가진 돈황사본과의 '상대적' 작성 순서만을 밝혔을 뿐 본 문헌이 저술된 구체적, 혹은 '절대적' 시대를 확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논자는 현재 『본업경소』가 포함된 오문관련 문헌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기획 중에 있으며, 본고는 그 시작점이 된다. 이후 각 문헌의 성립 순서와 상관 관계, 그리고 그 사상적 변천 양상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고찰을 통해서 각 문헌의 시대 배정, 나아가 6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불교 연구의 전모를 밝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약호

- T 大正新脩大藏經
- X 卍續藏經
- S 대영도서관 소장 Sir Aurel Stein(1862-1943) 장래(將來) 돈황한문문헌
- P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Paul Pelliot(1878-1945) 장래(將來) 돈황한문문헌

2. 원전류

- 『大正新脩大藏經』, 東京:大正一切經刊行會, 1924-1934.
- 『卍新纂大日本續藏經(卍新纂續藏)』, 國書刊行會(編), 東京:國書刊行會, 1975-1989.
- 『敦煌寶藏』, 黃永武(編), 台北:新文豊出版公司, 1981.
- 『中村不折舊藏禹域墨書集成 : 台東区立書道博物館所藏』, 磯部彰(編), 東京:ニ玄社 2005.
- 『藏外地論宗文獻集成』, 金剛大學校佛敎文化硏究所(編), 서울:CIR, 2012.

3. 단행본류

- 佛書解說大辭典編纂會(編), 『佛書解說大辭典 第7,8卷』, 東京:大東出版社, 1968.
- 青木隆 外, 『藏外地論文獻集成』, 서울:CIR, 2012.
- 矢吹慶輝, 『鳴沙餘韻: 敦煌出土未傳古逸佛典開寶 編著 1: 解說編』 京都:臨川書店, 1980(1930).
- 佐藤哲英, 『續·天台大師の硏究: 天台智顗をめぐる諸問題』, 京都:百華苑, 1981.
- 石井公成, 『華嚴思想の硏究』, 東京:春秋社, 1996.
- 大野法道, 『大乘戒經の硏究』, 東京: 理想社, 1963(1954).
- 鳴沙余韻, 『燉煌出土未伝古逸仏典開宝 1: 解說編』, 京都:臨川書店, 1980(1933).
- 이 자 평, 「『菩薩瓔珞本業經』의 菩薩思想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 논문류

- 김 천 학, 「법상(法上)『십지론의소』「가분석」의 전개」, 『지론종 연구』, 서울:CIR, 2017, pp.335-365.
- 박 보 람, 「六相說의 변천 과정 고찰－『十地經』부터 淨影寺 慧遠까지를 대상으로」, 『지론종 연구』, 서울:CIR, 2017, pp.221-252.
- Thi Van Anh Vo, “On the Bhūmi Theory in the Bodhisattvabhūmi”, 印度學佛教學研究 65(3), 2017, pp.1250-1255.
- 青木 隆, 「地論宗の融卽論と緣起說」, 北朝隋唐中國佛教思想史, 京都:法藏館, 2000, pp.179-201.
- 青木 隆, 「敦煌写本にみる地論教学の形成」, 『地論思想の形成と變容』, 國書刊行會, 2010, pp.44-64.
- 荒牧典俊, 「北朝後半期佛教思想史序說」, 『北朝隋唐中國佛教思想史』, 京都:法藏館, 2000, pp.13-85.
- 池田将則, 「慧遠『大般涅槃經義記』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동아시아불교문화』 26, 2016, pp.143-181.
- 大竹 晉, 「地論宗の煩惱說」, 『地論宗の研究』, 東京:國書刊行會, 2017, pp.137-190(한국어판 pp.161-219)
- 大竹 晉, 「北朝經錄斷片集成」, 『地論宗の研究』, 東京:國書刊行會, 2017, pp.865-901(한국어판 pp.1001-1039)
- 妻木直良, 「燉煌本仁王般若実相論に就て」, 『宗教研究』 3-2, 1926, pp.71-84.
- 藤谷昌紀, 「敦煌本『本業瓔珞経疏』の引用経論について」, 『大谷大学大学院研究紀要』 19, 2002, pp.103-125.
- 藤谷昌紀, 「『菩薩瓔珞本業経』の諸本について:敦煌写本S.3460を中心に」, 『印度學佛教學研究』 54(1), 2005, pp.25-30.
- 船山 徹, 「疑経『梵網経』成立の諸問題」, 『仏教史学研究』 39(1), 1996, pp.54-78.
- 水野荘平, 「五十二位の菩薩階位説の成立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57(2), 2009, pp.775-780.
- 山口弘江, 「『十地論義疏』と『大乘五門十地実相論』-周叔迦說の検討を中心として」, 『東洋學研究』 48, 2011, pp.117-133.

A Philological Survey of Stein No. 2748

Lee, Sangmin
Researcher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e chronological position of a Dunhuang manuscript entitled *Benyeyingluo-Jing-shu* (『本業瓔珞經疏』, henceforth "S2748"), a commentary on a Chinese apocryphal canon *Pusayingluobenye-Jing* (『菩薩瓔珞本業經』), in the Dilun texts of the early 6th Century Northern Dynasty (北朝, Beicha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ll the Buddhist canons quoted in S2748 are listed in Sūtra Catalogs of the Northern Dynasty. Among them, the *Laṅkāvatārasūtra* (*Rulengqie-jing*, 『入楞伽經』) translated by Bodhiruci in 513 AD has the latest date of translation. Thus the composition date of S2748 should be no earlier than 513 AD. It is also noteworthy that S2748 uses what are rarely found in the later Dilun School, such as *Shanbipusa-Jing* (『善臂菩薩經』) and *Wujinyi-Jing* (『無盡意經』).

2) As might be expected from a Dilun text, S2748 refers to *Daśabhūmikasūtraśāstra* (*Shidi-jinglun*, 『十地經論』) throughout the manuscript. Moreover, S2748 gives priority to the *Daśabhūmikasūtraśāstra* over the *Pusayingluobenye-Jing* in doctrinal explanations.

3) S2748 shares an almost identical paragraph with *Shidilunyishu* (『十地論義疏』), a representative text of the early Dilun School. Comparing these paragraphs seems to suggest that S2748 was written earlier than the *Shidilunyishu*.

4) The identical paragraphs of the two texts both state that “the first stage Bodhisattva out of ten stages can break the binding of Saṃsāra”, which was a soteriological doctrine newly adopted in the Dilun School. However, another passage from S2748 argues that it is actually at the seventh stage of the Bodhisattva path when the bindings of Saṃsāra would loosen. These conflicting statements clearly imply that their doctrinal system had not yet been fully organized at the time of S2748’s composition.

5) Another Dunhuang manuscript, *Renwangbanruo-shixianglun* (『仁王般若實相論』), shows an obvious correlation with S2748. These two texts are presumably founded in the same group though the *Renwangbanruo-shixianglun* seems to have been written before the Dilun School was established. It provides an interesting insight into the changing doctrinal identity of a certain group according to the propagation of new thoughts and soteriological devices.

Keywords

The Dilun School, Dunhuang Manuscript, *Benyeyingluo-Jing-shu* (本業瓔珞經疏), *Pusayingluobenye-Jing* (菩薩瓔珞本業經), *Daśabhūmikasūtraśāstra* (十地經論), *Shidilunyishu* (十地論義疏), *Renwangbanruo-shixianglun* (仁王般若實相論)

2018년 07월 08일 투고
2018년 09월 13일 심사완료
2018년 09월 20일 게재확정